

2023년 6월 7일

디스플레이 / 가전 Analyst 김동원
 02-6114-2913 jeff.kim@kbfq.com
 연구원 유우형
 02-6114-2940 Woohyung.yoo@kbfq.com
 연구원 박주영
 02-6114-2920 juyoung.park@kbfq.com
 연구원 이경아
 02-6114-2111 kyunga.lee@kbfq.com

LG디스플레이 (034220)

실적개선 빛이 보인다



더 많은 리포트 보기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패널 탑재 83인치 OLED TV 출시 예상

— 6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3인치 OLED TV에 대한 전파인증 적합성 평가 적합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출시가 임박한 제품에 대해 전파인증 적합성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르면 3분기 중에 83인치 OLED TV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삼성전자 OLED TV 제품 라인업에 83인치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삼성전자는 LG디스플레이 83인치 OLED TV 패널을 신규 탑재한 83인치 OLED TV (모델명: KQ83SC90A)를 3분기 중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대형 OLED, 내년 흑자전환 가시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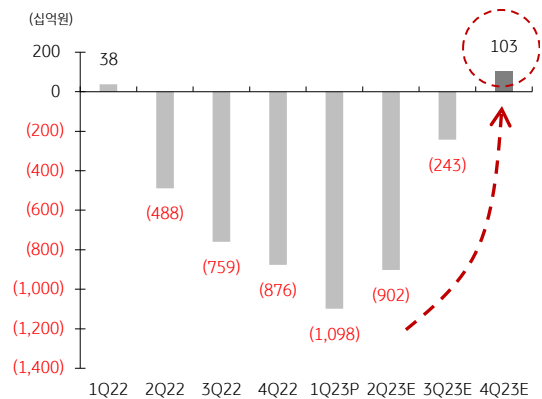
— 올해 3분기부터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에 77, 83인치 대형 OLED 패널 공급 시작이 예상되어 대형 OLED 생산라인 가동률은 4분기로 갈수록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① 8세대 OLED 생산라인에서 77, 83인치 초대형 OLED 패널 생산의 경우 기존 55, 65인치 OLED 패널 대비 생산량이 +2.5배 (55, 65인치: 5장 vs. 77, 83인치: 2장) 많기 때문에 가동률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② 77, 83인치 OLED TV 패널 판매가격은 55, 65인치 대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매출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024년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77, 83인치 초대형 OLED TV 패널 2백만대를 공급한다면 55, 65인치 기준으로는 5백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 LG디스플레이 대형 OLED 패널 사업은 LG전자로의 OLED 패널 연간 공급 4~5백만대를 감안할 때 풀 가동에 따른 흑자전환 가시화가 예상된다 <그림2>.

그림 1. 삼성 83인치 OLED TV, 국립전파연구원 인증 등록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인증현황검색결과	
상호	삼성전자(주)
기기명칭	OLED TV
모델명	KQ83SC90A
파생모델명	KQ83SC90AF KQ83SC90AFXR
인증번호	R-R-SEC-KQ83SC90A
제조사	삼성전자(주)
제조국가	한국, 중국, 헝가리, 멕시코, 슬로바키아, 베트남
인증연월일	2023-06-01
기타	

자료: 국립전파연구원, KB증권

그림 2. LG디스플레이 분기 영업이익 전망



자료: LG디스플레이, KB증권 추정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삼성전자]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LG전자]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